

# 업종만 바뀌어도 상속·증여세 폭탄이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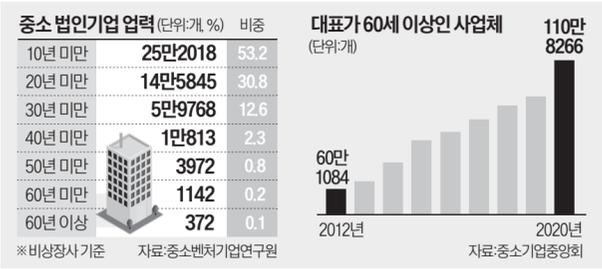
이정선의 시각

중소기업부 선임기자

25년 전 아버지가 세운 문구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여상훈 씨(38)는 요즘 승계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0년 티처스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과학교구 제조업에 뛰어들어 회사를 키운 게 오히려 화근이 됐다. 교구 제조 매출이 늘면서 주업종이 문구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어 증여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씨는 “그동안 번 돈을 모두 재투자했는데 수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니 허무할 뿐”이라고 했다.

기업승계와 관련한 까다로운 상속공제 요건을 개선해달라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승계 세제 완화를 요청했다.

주요 경제단체가 앞다퉀 기업승계 제도 개선 완화를 들고나온 배경에는 중소기업 경영진의 고령화가 자리 잡고 있다. 산업화 세대인 창업주들은 대거 은퇴할 시기를 맞았다. 중소기업연구원 따르면 중소기업의 CEO



## 기업승계 제도 개선 목소리

유통업 → 제조업 변경하면 증여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

연부연납 '5년 제한'도 짧아 '승계 규제'로 기업활동 위축

30% 이상이 60대 이상이다.

정부가 지난해 기업승계와 관련한 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일부 개선하기는 했다.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 담겼지만, 승계 과정에 선 여전히 문제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계가 꼽는 가장 큰 걸림돌은 업종 변경 제한이다. 기업승계 세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10년 이

상' 영위해야 한다. 그런데 주업종이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를 벗어나면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9년간 제조업을 하다 교육·서비스업으로 전환해 9년간 사업을 운영한 기업은 어느 한 분야의 사업도 10년을 채우지 못해 세제 혜택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상속·증여 과정에서 혜택을 본 기업은 승계 이후 5년간 기존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후 규정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 규정은 중분류조차 바뀌면 안 된다. 예컨대 제조업체(대분류) 중 금속(중분류) 관련 기업은 플라스틱업에 뛰어들지 말라는 것이다. 최자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때 5년으로 정해진 연부연납 기간도 너무 짧다고 호소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법인은 30년 이상 경영한 창업주가 자녀에게 600억원 규모 주식을 증여하려면 112억원의 증여세가 매겨진다. 이를 5년 동안 나눠 내려면 매년 22억 4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6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승계 제도개선 설문조사에서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답변이 70.2%에 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장은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20년으로 늘려야 기업의 영속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과표 구간별로 10%, 20%로 제각각인 증여세율도 10% 단일 세율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대 5 지분으로 공동 창업한 기업의 상속공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상속공제가 1회로 제한되면서 두 명인 최대 주주의 2세 승계가 원활하지 못해서다.

윤병삼 가족기업학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기업의 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려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0억원으로 축소됐다"며 "승계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스마트기술도 '데이터 표준화' 중요"

이휘정 인포와이즈 대표 "국내 200개 업체와 협업"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거나 원격직료를 시작하려면 흩어진 데이터부터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언어는 지역별 세대별로 다양한 모습을 띤다. 표준어를 정하는 이유다. 기업, 의료기관, 공공기관마다 갖가지 특수용어로 정보를 기록하곤 한다. 이때 기준 정보를 정리하는 '데이터 표준화' 작업은 정보의 복잡도를 낮추고, 다른 분야 관계자 간에 효율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22일 만난 이휘정 인포와이즈 대표(사진)는 국내 데이터 표준화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조달청(현 나라장터) 서비스 체계의 시초 작업부터 25년간 각종 굵직한 작업을 도맡아 왔다.

대표 사례는 삼성전자와 서울아산병원이다. 삼

성전자는 인포와이즈와 전자 기준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에선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과별로 제각각이던 의료정보 데이터를 일원화했다.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롯데데이터로직스 에스오일 등과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관심이 스마트팩토리로 몰렸다"며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그는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회사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2년 설립된 인포와이즈는 2012년 코스닥시장 상장 소프트웨어 기업 엘모에 인수됐다. 150~200개 회사와 협업해 왔다. 올해 매출은 20억원 수준이던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50억원 이상으로 기대된다. 유럽 기자



# "코로나 위기, 희망리턴패키지로 극복"

안은영 단디무라 카페 사장

소진공서 매장 리모델링 지원

경남 김해에서 요식업 단디무라 매장을 운영하는 안은영 씨(사진). 안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봄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매장을 리모델링했다.

안씨는 2020년 1월 단디무라를 열었다. 새 매장을 차렸다는 기쁨도 잠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손님을 받을 수 없었다. 펌과 카페를 혼합한 가게에서 빠르게 배달 혼합형 매장으로 변신했다.

그러던 때 안씨는 소진공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만났다. 지원 예산 1700만원과 자부담 1700만원을 더해 매장을 회사하게 꾸렸다. 또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라인으로 판로를 확대했다. 안씨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매장에서 음식 팔고 배달하는 것도 박찬대 온라인으로도 판매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이 도와준 덕분에 자신있게 상품을 만들어 볼 수 있었다"며 "그 덕분에 현재 매장뿐 아니라 다른 곳에 하나 더 확장해 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암흑기를 견딘 안씨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재도약 기회로 삼았다. 전북북읍읍과 월드브루 커피 등을 밀키트로 만들어 온라인 판매하면서 매출이 경종 뛰었다. 코로나 대응형 시점과 비교해 지난해 매출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안씨는 "교육의 질이 상당히 우수한 만큼 참가자들이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소진공에서 적극 나서준다"고 인사를 세워 보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에 올해 희망리턴패키지로 1464억원을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최형창 기자

# 중견련 "함께 성장할 스타트업 모십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중견련은 선택식품 등 9개 회원사가 동참하는 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아이엠 쉐린지'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견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주요 모집 대상이다. e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헬스 분야 수요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

트업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스타트업에는 1대1 미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매칭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서울창업허브 입주와 사업화 검증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서울창업허브 M플러스 입주, 위코노미 펀드 투자 연계를 지원하고 한국표준협회는 기업당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사업화 검증 자금을 제공한다. 최형창 기자

# 직장인·수험생 '바른 허리' 만드는 의자

▶오피스텔

다우스 '노바디체어' 출시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사무직 종사자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까닭에 허리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가구전문기업 다우스는 기능성 의자 노바디체어(사진)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바디체어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3분할 좌판(방식) 방식의 기능성 의자의자다. 엉덩이 접촉 시 각도가 변하는 유동 좌판을 적용해 허리뼈가 일정한 만곡각(척추 휘어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활지흔 다우스 대표는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도하는 제품"이라고 22일 설명했다.

등받이에 요추지지대를 적용해 요통을 예방하는 기존 의자와 달리 노바디체어는 골반의 후방 회전 방식에



조점을 맞췄다. 후방 회전은 의자에 앉을 때 골반이 아래로 돌아갈 것을 의미한다. 후방 회전은 장시간 착좌 시 허리 피로감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의자 뒤 좌판은 유동형으로 제작돼 골반 움직임과 하중 방향에 따라 척추 각도를 조절한다. 다우스는 한양대 인체공학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했고, 기술 특허도 등록했다. 노바디체어는 조달청 등록을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 중이다. 황 대표는 "건강을 고려한 의자 구매가 늘고 있기에 노바디체어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주 기자

# "한 번에 4인분 요리 똑딱"

쿠쿠, 대용량 에어프라이어

쿠쿠전자는 7L 대용량 크기의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쿠쿠전자는 2.9L 소형 제품부터 7L 제품까지 다

양한 에어프라이어 제품을 갖췄다. 이 제품은 한 번에 3~4인분 요리가 가능하다. 공간 효율을 높인 가로, 세로 각 24cm 크기로 냉동 피자 및 통삼겹살 요리도 할 수 있다.

조그 다이얼로 65도부터 200도까지 1도 단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김경주 기자

##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지원지침

2023년 6월 23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 1. 용자 규모(2,000억원 이하)

※ 세부지원기준도 소액 사업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됨

### 2. 용자 대상 업종, 용자 한도 및 접수처

업종	대상 업종	용자 한도	신청처
관광사업	관광사업	1. 국내여행사업 2. 해외여행사업 3. 관광진흥사업 4. 관광진흥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관광진흥사업 7. 관광진흥사업 8. 관광진흥사업 9. 관광진흥사업 10. 관광진흥사업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	1. 국내여행사업 2. 해외여행사업 3. 관광진흥사업 4. 관광진흥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관광진흥사업 7. 관광진흥사업 8. 관광진흥사업 9. 관광진흥사업 10. 관광진흥사업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	1. 국내여행사업 2. 해외여행사업 3. 관광진흥사업 4. 관광진흥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관광진흥사업 7. 관광진흥사업 8. 관광진흥사업 9. 관광진흥사업 10. 관광진흥사업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	1. 국내여행사업 2. 해외여행사업 3. 관광진흥사업 4. 관광진흥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관광진흥사업 7. 관광진흥사업 8. 관광진흥사업 9. 관광진흥사업 10. 관광진흥사업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	관광사업	1. 국내여행사업 2. 해외여행사업 3. 관광진흥사업 4. 관광진흥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관광진흥사업 7. 관광진흥사업 8. 관광진흥사업 9. 관광진흥사업 10. 관광진흥사업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	1. 국내여행사업 2. 해외여행사업 3. 관광진흥사업 4. 관광진흥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관광진흥사업 7. 관광진흥사업 8. 관광진흥사업 9. 관광진흥사업 10. 관광진흥사업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	1. 국내여행사업 2. 해외여행사업 3. 관광진흥사업 4. 관광진흥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관광진흥사업 7. 관광진흥사업 8. 관광진흥사업 9. 관광진흥사업 10. 관광진흥사업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	1. 국내여행사업 2. 해외여행사업 3. 관광진흥사업 4. 관광진흥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관광진흥사업 7. 관광진흥사업 8. 관광진흥사업 9. 관광진흥사업 10. 관광진흥사업	한국관광공사

### 3. 용자 접수 및 사업내용

구분	일정	사업내용
신청	2023. 6. 23. 일 ~ 11. 17. 일	신청서 접수
심사	2023. 6. 23. 일 ~ 11. 17. 일	심사
발령	2023. 6. 23. 일 ~ 11. 17. 일	발령
시행	2023. 6. 23. 일 ~ 11. 17. 일	시행

### 4. 지원금

구분	지원금	비고
관광사업	1. 국내여행사업 2. 해외여행사업 3. 관광진흥사업 4. 관광진흥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관광진흥사업 7. 관광진흥사업 8. 관광진흥사업 9. 관광진흥사업 10. 관광진흥사업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	1. 국내여행사업 2. 해외여행사업 3. 관광진흥사업 4. 관광진흥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관광진흥사업 7. 관광진흥사업 8. 관광진흥사업 9. 관광진흥사업 10. 관광진흥사업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	1. 국내여행사업 2. 해외여행사업 3. 관광진흥사업 4. 관광진흥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관광진흥사업 7. 관광진흥사업 8. 관광진흥사업 9. 관광진흥사업 10. 관광진흥사업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	1. 국내여행사업 2. 해외여행사업 3. 관광진흥사업 4. 관광진흥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관광진흥사업 7. 관광진흥사업 8. 관광진흥사업 9. 관광진흥사업 10. 관광진흥사업	한국관광공사

다. 주요조건: 1. 최소 1회 이상 지원금 사용 의무 있음. 2. 지원금 사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3. 지원금 사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4. 지원금 사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5. 지원금 사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6. 지원금 사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7. 지원금 사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8. 지원금 사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9. 지원금 사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10. 지원금 사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